

# 라면·생수·쌀... 광주 생필품 사재기 조짐

광주·전남 이마트 3일간 생수 55%·라면 47% 등 매출↑ 온라인 유통업체 주문 폭주 일부 가짜뉴스에 불안감 증폭



광주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말 새 일부 생필품 사재기 움직임(오른쪽)이 감지됐으며 대형마트 등에서는 마스크·손소독제 품귀가 지속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대형마트에서는 주말 동안 '사재기' 행렬이 이어졌고 광주지역에서도 주요 생필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

24일 지역 대형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 지역 추가 확진자가 나온 지난 20일부터 사흘 간 라면과 생수 등 주요 생필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50% 올랐다.

광주·전남에 7개 점포를 둔 이마트의 경우 생수 매출은 55% 뛰었고, 라면(47%), 쌀(40%), 냉동식품(34%), 우유(27%) 등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전남지역 9개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라면(37%), 냉동식품(27%), 생수(18%), 우유(12%), 쌀(6%) 등 5가지 생필품 평균 매출이 25%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사흘 동안 휴점한 뒤 이날 영업을 시작한 홈플러스 광주주점점도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눈에 띄었다.

홈플러스는 매장 곳곳에 즉석밥과 컵밥 등 간편식 매대를 따로 마련했다.

김형순(63·동구 계림동)씨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까지 한 달에 한번씩만 마트 쇼핑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라면과 우유 등 꼭 필요한 물품 위주로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계림점에 입점한 한 화장품 업체 직원(24)은 "전날 재개장 소식을 듣고 출근 통보를 받았다"며 "오전 동안 단 한 명의 손님도 받지 못했지만 식료품을 사러는 고객들은 더러 보였다"고 말했다.

일부 동네마트 역시 주말 동안 생필품 일부 품목이 동나면서 소비자 불만을 겪기도 했다. 평일 들어 주요 생필품 납품이 시작되면서 매장현상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

직접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생필품 수요는 온라인 쇼핑몰로 몰렸다.

대형마트 배달 앱을 포함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에는 한꺼번에 주문이 폭주해 주문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선식품을 주로 배송하는 마켓컬리는 이날 "주문량 증가로 택배 주문이 조기 마감됐다"며 "밤 11시 이후 주문을 다시 받는다고" 공지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신세계그룹 SSG닷컴의 식품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전이 예상되면서 '마스크 품귀'는 심화되고 있다. 2월 초순까지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30개로 제한했던 대형마트들은 한정 수량을 5~10개로 줄였다.

광주지역 대형마트의 경우 수급 여건에 따라 매장당 하루 180~500개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매대에 오르는 즉시 품절되고 있다. 이마트에서는 1인당 마스크 10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롯데마트(5개), 홈플러스(5~10개) 등도 제한 수량을 뒀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자의적으로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뉴스가 여럿 나왔지만 광주지역은 아직 사재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설사 대량 구매가 잇따라 발생하더라도 생필품 재고 상태는 안심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자의적으로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뉴스가 여럿 나왔지만 광주지역은 아직 사재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설사 대량 구매가 잇따라 발생하더라도 생필품 재고 상태는 안심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79.04 (-83.80) ↓ 금리(국고채 3년) 1.14 (-0.04)
- ↓ 코스닥 639.29 (-28.70) ↑ 환율(USD) 1220.20 (+11.00)

## 최고 연 3.8% 금리...광주은행 적금 인기

해뜨쥬 한달 만에 1만좌 돌파 여행스케치 7650억원 계약

23일 기준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Ⅲ' 가입계좌는 11만9000좌, 계약액은 7650억원을 넘겼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연 2~3% 대 금리를 내세우는 적금상품에 소비자가 몰리고 있다.

24일 광주은행(행장 송종욱)은 '의의해'를 맞아 지난 달 2일 출시한 '2020해뜨쥬적금' 가입계좌가 한 달 여만에 1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해뜨쥬적금'은 주민등록상 '쥬피해'에 출생한 고객에게는 2배의 우대금리 혜택을 주며 최고 연 3.8%의 금리를 내주고 있다.

여행을 할 때마다 혜택이 생기는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도 출시 4년 7개월만에 누적 가입계좌 12만좌를 앞두고 있다.

'여행스케치적금' 역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2.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조건은 광주카드 이용실적, 요구불예금평잔 실적, 환전실적, 비대면 신규가입 등이 있다. 제휴 여행상품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3%를 현금 지급(개시백)하고 주요 통화에 대해 최대 70% 환율 우대하는 등 관련 혜택도 다양하다.

김재춘 영업추진부장은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과 '2020해뜨쥬적금'이 광주은행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보내준 고객과 지역민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높은 이자수익도 거둘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올해 공공 공사 31억 7000억 발주

지자체보다 12.5% 상승

이 개별 시스템이나 '나라장터'에서 자체 발주한다.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규모가 늘고 발주도 상반기에 이뤄진다.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발주 금액의 67%인 21조2392억원이 상반기에 이뤄진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3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28조2000억원보다 12.5%(3조5000억원) 늘어난다.

중앙행정기관은 4조2807억원으로 지난해 4조598억원에서 5.4% 증가했고, 공공기관은 17조1332억원으로 지난해 12조9562억원 대비 32.2% 늘었다.

이 중 중앙조달은 8조5000억원으로 조달청이 직접 발주하고, 나머지 23조2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자체는 10조3563억원으로 지난해 11조2183억원보다 7.7% 감소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체 수입선 발굴 나선다

중진공 광주, 홍보·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피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대체 수입선 발굴과 온라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 전문기업과 협력해 중국 내 지역봉쇄 및 물류제한 등에 따라 중국 원부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대체 수입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시회 등 오프라인 행사 취소와 대면거래 제약으로 해외 판로개척에 차질이 생긴 피해기업과 위생용품 분야 등 위기상황 수요확대에 따른 기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 전시관 입점과 온라인 전시회 홍보·마케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박기용 기자 pbxer@



"우리 돼지 먹고 힘내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왼쪽 세번째)는 24일 구내식당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삼겹살 300인분을 직원과 나눴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코로나19 여파에 코스피 3.9% 폭락

1년4개월 만 최대 낙폭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21일 1456조7000억원에서 1400조5000억원으로 56조2000억원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충격이 커지면서 24일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해 2080선 아래로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8.70포인트(4.30%) 떨어진 639.29로 종료했다. 시가총액은 전 거래일 당시 242조2000억원에서 231조9000억원으로 10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3.80포인트(3.87%)나 떨어진 2079.04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은 총 66조5000억원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코스피는 지난 2018년 10월 11일(-98.94포인트--4.44%) 이후 1년 4개월여 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